

#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1년 10월 17일  
제1865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마르 10,44-45〉



〈십자가를 안고 가시는 예수님〉, 엘 그레코

## 연중 제29주일 (나해)

**제 1 독서** 이사 53,10-11 |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리라.

**화답송** 시편 33(32)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제 2 독서** 히브 4,14-16 |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복음** 마르 10,35-45 (또는 마르 10,42-45) | 사람의 아들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 사람의 아들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때에 <sup>35</sup>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sup>36</sup>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sup>37</sup>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sup>38</sup>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sup>39</sup>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sup>40</sup>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sup>41</sup>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sup>42</sup>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sup>43</sup>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sup>44</sup>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sup>45</sup>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 성화 해설



<십자가를 안고 가시는 예수님>  
 엘 그레코

엘 그레코는 르네상스 후기에 활동한 화가로서 성화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 그는 16세기 최고의 종교화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 작품에서 예수님은 죄악에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커다란 십자가를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느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구원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웅모 신부>

### 복음 묵상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강력한 힘과 권능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들과는 달리, 메시아를 세상의 통치자며 권력자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메시아를 제시하십니다. 오늘 제1독서는 성주간에 듣게 되는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 같았지만, 그가 받은 고통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의 고통을 통해서 많은 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대속’(代贖)의 의미가 담긴 노래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 주실 메시아는 강한 힘을 가지고 현세를 개혁하는 혁명가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매 맞고 고통당하는 이였습니다 (이사 52,13-53,12 참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수백 년 전 이사가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예언의 완성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말씀을 완성하시고자 온갖 수난과 고통을 인내하시며 ‘대속’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서는, 아끼던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셨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과정에서 서로 마음 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힘과 권능을 지닌 메시아를 예수님에게서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한 바람은 우리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복음은 알려 줍니다. 누구나 탐내는 첫자리에 진정으로 오르고 싶다면,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박형순 바오로 신부>

## “기쁨과 감사, 여러분과 함께 봉헌합니다.”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본당 승격 25주년 감사미사 봉헌을 위해 보고 싶었던 신부님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다. 박용식 시몬 초대 신부님, 곽호인 베드로 신부님(6대 역임), 김용성 타대오 신부님(5대 역임)이 전하는 가슴 벅찬 소감과 축하 인사를 들어본다.

### “신앙이 숨쉬는 성전, 내적인 성숙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 정바오로 성당 초대 신부  
(1986년 9월 - 1991년 4월)

### 박용식 시몬 신부

#### 정말 꿈만 같습니다.

성 정 바오로 성당 초대 신부로 있었을 때 신자들과 함께 집없는 서러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성당도 없었고 회의실도 없었고 주일날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눌 친교실도 없었고 신자들도 가난했습니다.

이 집 저 집, 미국 성당 세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셋방살이를 한 거죠. 우리만의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뤄졌어요. 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정말 좋은 꿈은 이뤄지나 봅니다.

당시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짓겠다고 교구청에 계획서를 제출했더니, 교구청에서 우리가 건축 기금 3분의 1을 모금하면 3분의 2를 지원해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목표 금액이 100만불이었는데, 처음에는 그 큰 금액이 불가능하기만 했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호텔에 신자들을 초대해 저녁을 대접하고 간절한 바램을 담아 건축기금에 대해 설명했는데, 목표 금액을 모두 모금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기적이라고도



### “우리만의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뤄졌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초기에 성전을 마련하느라 함께 고생하신 신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 고생은 잊혀지고 모든 게 추억으로 남는다는 말처럼 지금은 제 맘 속에 소중한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성전을 갖고 싶었던 절박한 마음과 노력이 씨앗이 되어 오늘 이렇게 25주년의 기쁨을 맞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초대 신부로 재임하는 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30대여서 열정만 있었지 경험이나 노련미가 부족했던 거 같아요. 지금처럼 나이가 들어 신부로 온다면 신자들에게 더 잘하는 사제가 되지 않을까요.(웃음) 그 후 훌륭한 신부님들이 후임으로 오셔서 오늘날의 본당으로 키워내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 신앙이 숨쉬는 성전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25년은 '하느님 안에서 이뤄지는 신앙 공동체', 내적 성숙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영성적 갈증은 내적 성숙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평소에 미사도 드리고 기도와 묵상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신앙생활 외에도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신앙 교육이나 피정 등을 통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심은 없고 세속적인 이유나 사회 생활의 필요성에 의해서 성당을 찾는 신자가 많아진다면, 교회 내부에 부작용도 함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오로지 '신앙'을 찾아 성당에 오고, 하느님 안에서 위로받고 사랑을 나누러 오는 곳, 신앙이 전부가 되는 성전으로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공동체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성 정바오로 성당 5대 주임 신부  
(2003년-2007년)

김용성 타대오 신부



오랜만에 성 정 바오로 성당 신자들을 만나니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이곳 신자들이 저희들을 깊이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공동체는 진심으로 사제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이 참 많은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환영해 주시는 신자분들께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 살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가서 이곳에서의 생활을 돌아보니 제가 많이 부족했더군요. 사제인 내가 먼저 여러분들을 더 위로하고 사랑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와 사랑을 받았다는 걸 돌아가서 깨달았어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드리고 죄송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 곳에 있을 때 하상관을 지었는데, 그 때 신자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과 열정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미래의 자녀 교육, 청소년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한마음이 되어 기금을 모금하고 끝내 이루어내시는 저력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서양에서는 25주년을 한 세대로 본다죠. 성 정 바오로 성당은 이제 새로운 세대를 향해 출발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버려야 하는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취하고 버리는 기준, 그 기준은 바로 '하느님'이고 '예수님의 사랑'임을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25년, 30년, 50년, 단순히 숫자나 외형적인 발전이 아니라 하느님 마음에 드는 공동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성장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목표는 우리가 영원히 지향해야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 좋은 것은 취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버려야 하는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취하고 버리는 기준, 그 기준은 바로 '하느님'이고 '예수님의 사랑'임을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

현 원주교구 총대리  
성 정 바오로 성당 6대 주임 신부 (2007년-2012년)

곽호인 베드로 신부

“‘새로 선택한 고향’에서 정체성을 잊지 말고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성 정 바오로 성당 신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실하게 큰 본당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롭습니다. 앞으로도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말고 '새로 선택한 고향'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공동체로 태어나는 출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교황청이 발표한 '이민사목에 대한 훈령'을 보면 자기의 뿌리를 잊지 않고 후손에게 그 정체성을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모국어'와 '문화'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사회 현실은 여러가지 장벽이 있겠지만 정체성을 계승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이민오신 분들은 30년, 길게는 5,60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이민 역사를 보면 200년이 넘는 나라도 있겠고요. 나무로 말하자면 200년 묵은 나무 옆에 우리 한인들은 어린 나무들이지요.

오래된 다른 나라의 역사를 보고 부러워하거나 주눅들지 말고, 우리만의 정체성을 갖고 깊이 뿌리내리면서 큰 나무로 우뚝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보면 큰 숲을 이뤄 햇빛을 많이 받는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라 믿습니다.



본당 교리경시대회 출제 문제(12) **천주교 교리문답**

제 3 편 은총을 받는 방법

6. 대사(大赦)

274. 대사는 무엇입니까?

〈답〉 대사는 고백성사로 사함을 받은 죄의 잠벌을 천주교회에서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275. 천주교회에서 어떻게 죄의 잠벌(暫罰)을 면제시켜 줍니까?

〈답〉 천주교회에서 죄의 잠벌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예수의 무한한 보속과 성모와 성인 성녀들의 넘치는 보속의 공로를 산 이와 죽은 이에게 나눠줌으로써 합니다.

276. 대사는 누가 베풀어줍니까?

〈답〉 대사는 교황과 주교와 또 교황에게서 이 권을 위임받은 이들이 베풀어줍니다.

277. 대사는 몇 가지 있습니까?

〈답〉 대사는 잠벌의 전부를 면제시키는 전대사와 그 일부를 면제시켜 주는 한대사입니다.

278. 대사를 얻기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답〉 대사를 얻기에 필요한 조건은 영세하고 파문을 받지 않은 자로서, 대사 얻을 뜻을 가져야 하고, 정해진 기도를 해야 하며, 적어도 기도를 다 마칠 때에는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특히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소죄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없어야 합니다.

279. 대사는 누구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까?

〈답〉 대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연옥 영혼**에게 양보할 수 있으나, 생존자에게는 넘겨줄 수 없습니다.

제4절 성체

280. 성체는 무엇입니까?

〈답〉 성체는 빵과 포도주로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이십니다.

281. 성체성사는 무엇입니까?

〈답〉 성체성사는 7성사 중에 제일 큰 성사이며, 천주교회의 제사이고, 또한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1. 성체로 계시는 예수

282. 예수께서 언제 성체성사를 설정하셨습니까?

〈답〉 예수께서 성체성사를 설정하신 것은 수난 전 날 저녁이니, 빵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하고, 후에 포도주를 드시고 “너희는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니라”하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283. “이는 내 몸이니라, 이는 내 피니라” 하신 말씀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답〉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예수의 몸과 피로 변화되고, 빵과 포도주의 형상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284.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하신 말씀으로 예수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답〉 제자들을 사제 지위에 올리고, 성체를 이루고 제사를 드리며 성체를 나누어주는 권을 주시고, 또 세상이 마칠 때까지 그 성무를 수행할 후계자들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285. 사제가 어느 때에 성체를 이루게 됩니까?

〈답〉 사제가 성체를 이루는 것은 미사를 드릴 때입니다.

2. 미사(MISSA)

286. 미사는 무엇입니까?

〈답〉 미사는 천주교회의 참된 제사입니다. 예수께서는 사제가 행하는 예절로 십자가의 제사를 새로이 재현하시며, 기념하시고 또 당신의 몸과 피를 천주성부께 제물로 드리십니다.

287. 사제가 성체를 이루기 위하여 무슨 재료와 기도문을 사용합니까?

〈답〉 예수께서 성체를 세우실 적에 쓰시던 재료와 기도문을 사용합니다.

288. 사제가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를 들고 기도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 예수께서 성체를 세우실 때와 같이 빵과 포도주의 체(體)가 없어지고 생활하신 예수 즉시 계시며, 빵과 포도주의 형상만이 남게 됩니다.

289. 미사가 십자가의 제사와 어떻게 같습니까?

〈답〉 미사가 십자가의 제사와 같음은 **제물과 제관이** 같으니, 다만 그 드리는 방식이 달라서 십자가에는 피 흐름이 있었고, 미사에는 피 흐름이 없을 뿐입니다.

290. 미사로서 우리는 십자가상의 공로와 효과를 받게 됩니까?

〈답〉 미사로서 우리는 십자가상의 공로로 효과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의 성혈공로를 인하여 천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291. 미사의 영신적 이익이 몇 가지 있습니까?

〈답〉 미사의 영신적 이익이 세가지 있으니,  
1) 모든 신자들이 받는 것과  
2) 미사를 청한자가 받는 것과,  
3) 미사를 드리는 사제가 받는 것입니다.

292. 미사의 주요한 부분은 몇 가지 있습니까?

〈답〉 말씀의 전례와 감사송 외에 세 부분이 있으니, 빵과 포도주의 **봉헌과 성체축성과 영성체**입니다.

293. 미사 참례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 미사참례는 십자가상의 제사를 생각하여 사제와 한가지로 예수의 몸과 피를 천주 성부께 드리고 영성체하거나 적어도 정신으로도 성체를 모심으로써 예수와 일치 결합하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294. 예수께서는 미사 때에 제대 상에 계십니까?

〈답〉 예수께서는 제대 상에 미사 때는 물론이고, 성체를 모신 곳마다 항상 계시니, 우리는 자주 그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며, 흠모하는 정을 발하고 기도하며 성당 안에서는 태도를 정중히 해야 합니다.

3. 영성체

295. 영성체는 무엇입니까?

〈답〉 영성체는 축성한 제병을 받아먹음으로써 생활하신 예수를 마음 안에 모심입니다.

296. 천주시오 사람이신 예수 축성한 제병에 전체로 계십니까?

〈답〉 천주시오 사람이신 예수 축성한 제병에 전체로 계시니, 축성한 성체의 그 조각 안에도 전체로 계십니다.

297.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비해야 합니까?

〈답〉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영혼과 육신을 거룩하고 단정하게 예비해야 합니다.

298.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 영혼의 예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 영혼을 깨끗하고 뜨겁게 예비해야 할 것이니,

만일 대죄 중에 있으면 합당한 고해성사로서 은총의 상태에 있게 하고 열렬한 사랑을 발하게 할 것입니다.

**299.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 육신의 예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 육신의 예비로서 **영성체 전 적어도 한시간 전부터** 음식을 먹지 말고 몸을 단정히 하며 정성을 다하여 조심스럽게 합니다.

**300. 정당한 예비없이 영성체하면 무슨 죄가 됩니까?**

〈답〉 정당한 예비없이, 즉 대죄 중이거나 혹은 합당한 사유(중병에 걸려 있다거나) 없이 공심재(空心齋)를 지키지 않고 영성체하면, 성체를 모독하는 중죄가 됩니다.

**301. 영성체를 하기 전에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미사드리는 사제와 함께 뜻을 같이하여 신, 망, 애 삼덕과 통회의 정을 발하고 또한 예수께서 나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청해야 합니다.

**302. 영성체한 후에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예수를 흠모하며 감사하는 정을 발하고, 영혼과 육신을 예수께 드리며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303. 성체를 잘 모시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답〉 성체를 잘 모시면 예수와 일치, 결합하고 성체로써 우리 영혼을 기르고 은총을 더욱 보태어 받으며, 힘을 얻어 선업에 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5절 병자성사**

**304. 병자성사는 무엇입니까?**

〈답〉 병자성사는 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신자들, 특히 임종의 위험이 있는 신자들을 영신적으로 돕는 성사입니다.

**305. 병자성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답〉 병자성사의 효과는 환자에게 은총을 더해주고, 마음을 위로하며 고통 중에 당하는 유혹을 물리치게 하며, 죄의 잠벌과 고통을 감해 주고, 비록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병자가 통회하는 죄를 사해주며, 구원에 유익하면 때때로 육신의 병도 낫게 하는 것입니다.

**306. 병자성사는 어떻게 거행합니까?**

〈답〉 병자성사는 사제가 성유를 바르며 정한 기도를 바침으로 거행합니다.

**307. 병자성사는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병자성사는 같은 죽을 위험에서는 한 번 밖에 받지 못하지만, 다른 이유로 새로이 당하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308. 병자가 이 성사를 받기 전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답〉 고백성사를 받도록 할 것이며, 만일 고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진심으로 통회를 발해야 하며, 죽을 위험에는 신, 망, 애 삼덕을 발하고 생사를 천주께 맡기며, 영성체를 하도록 힘쓸 것입니다.

**309. 병자성사를 받는데 있어서 환자를 간호하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답〉 사제에게 미리 알려져 맑은 정신으로 성사를 받게 하며, 환자의 병실을 깨끗이 하고, 영성체를 위한 준비도 미리 해 놓도록 해야 합니다.

**제6절 신품(神品)성사**

**310. 신품은 무엇입니까?**

〈답〉 신품은 천주교회 안에 주교와 사제와 기타 성직자들을 세우고, 각기 맡은 성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는 성사입니다.

**311. 성경에 신품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까?**

〈답〉 성경에 신품에 관한 말씀이 있으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제 직위와 은총을 주신 것과 제자들은 이 권을 다른 후계자들에게 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2. 사제의 지위가 존귀합니까?**

〈답〉 사제의 지위가 존귀한 것이니, 사제는 천주께 부르심을 받고 그 직능을 받은 자로서, 홀로 천주께 제사드릴 권이 있고 천주와 사람 사이의 중개자로서

천주의 말씀과 계명을 가르치며 성사를 거행합니다.

**313. 신자들이 사제들에게 해야 할 본분은 무엇입니까?**

〈답〉 사제들을 존경하고 그 지도에 순종하며 항상 기도하고 또 사회적 면에서 아끼고 보호하며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314. 자녀들에게 사제나 수도자 되기를 금하거나 강요하는 부모는 어떤 죄가 됩니까?**

〈답〉 자녀들에게 사제나 수도자 되기를 금하거나 강요하는 부모는 천주의 권리를 거스리는 중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7절 혼인성사**

**315. 혼인성사는 무엇입니까?**

〈답〉 혼인성사는 예수께서 부부의 인연을 성사로 세우신 것이니, 이로써 부부가 은총을 받아 종신토록 화목하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16. 가톨릭 혼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답〉 가톨릭 혼인의 특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정당한 결합으로서 절대로 이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317. 가톨릭의 혼인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가톨릭의 혼인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란 부부 서로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다른 이와 절대로 동거하거나 결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18. 혼인성사를 받기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답〉 혼인성사를 받기에 필요한 조건은 아무 장애가 없어야 하고 교리를 넉넉히 알고, 건진성사를 받아 적어도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본당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예식을 거행해야 하며 온전한 자유로 서로 원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319. 자녀들의 혼인에 대하여 부모들이 해야 할 본분은 무엇입니까?**

〈답〉 자녀들의 장래와 특히 그들의 영신적 이익을 가장 중요히 여기고 주선해 주어야 하며, 그들의 정당한 자유를 억압하지 말고, 미리 적어도 한 두 달 전에 주임신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320. 부부가 서로 지킬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같이 살아야 하고,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321. 천주교회에서 가족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답〉 비윤리적이며 비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8절 준성사(準聖事)**

**322. 준성사는 무엇입니까?**

〈답〉 준성사는 천주교회에서 신자들의 영신적 유익을 위하여 7성사를 본떠서 세운 물건이나 행동이니, 구마 축성 강복 같은 것입니다.

**323. 준성사와 성사가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답〉 성사는 장애만 없으면, 행하는 예절의 힘으로 은총을 직접 내어 주지만, 준성사는 받는 자와 행하는 자의 성덕과 정성에 의하여 은총과 그 효력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323 문제를 끝으로 천주교 교리문답 연재를 마칩니다. 천주교 교리를 공부하며 천주교 신앙의 진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 교리경시대회 : 11월 7일(일)

▶ <https://stpaulchung.org/content/gospel-quiz> 홈페이지 > 소식과 나눔 > 나눔의 방 > 천주교 교리문답

**1 하상회, 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10월 17일(일) 오전 11:40, 친교실

**2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10월 17일(일) 오전 11:40 (하상관 #4,5)

**3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5K 걷기 / 달리기**

- 일시 : 10월 23일(토) 오전 7:30
- 장소 : Burke Lake Park (Shelter A)
- 신청 : 8시, 10시 미사 전·후(성당 로비)
- 신청비 : 1인 \$15 / 2인 \$25 / 한 가족당 \$30(3명)
-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 김 소피아 (703) 314-0905

**4 CYO 성가대, 오케스트라 오디션**

- 일시 : 10월 24일(일) 오후 4시(하상관 음악실, B #7)
- 대상 : 7학년 -12학년
- 자유곡 1곡, Scale, 시험(Sight Reading-당일 설정)
- 문의 : 조 스테파니아 (703) 725-3167

**5 2021년 학생 견진성사 미사**

- 미사 주례 : 폴 로버디 주교님
- 일시 : 10월 26일(화) 오후 7시
- 전례 연습 : 10월 23일(토) 오후 2시
- 견진 대상자와 대부모님은 꼭 참석하십시오.

**6 제342차 올드레아 회합**

- 일시 : 10월 29일(금) 오후 7:30 미사 후(A-1,2,3)

**7 주교님과 함께 하는 알링턴 교구 마리아 순례**

- 성 요셉의 해를 맞이하여 알링턴 교구에서는 기도와 마리아 순례여행날을 지정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0월 30일(토) 오전 9:30-오후 2:30 (성당 출발 오전 8:30)
  - 장소 : National Shrine 성당
  - 신청 : 10월 17일까지(친교실) • 참가비 : 중식(10불)
  - 문의 : 한상준 프란치스코 단체부회장 (703) 439-8992

**8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야외미사**

- 일시 : 10월 31일(일) 오전 10시 (Bull Run Park Shelter 1, 2)
- 개인 준비물 : 바닥 깔개 및 점심식사
- 야외미사로 인해 본당에서는 31일(주일)에 모든 미사가 봉헌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미사**

- 11월 1일(월)은 '모든 성인의 날' 의무 대축일입니다.
- 의무 대축일 미사: 오전 6시, 오후 7:30

**10 2022년도 매일미사책 신청 및 병초(Box) 주문**

- 성물부에서 1년분을 신청받으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성물부

**11 주일학교 교리교사·교무교사를 찾습니다.**

- 문의 : 이태섭 요한사도 신부님

**12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11월 6일(토) 오전 11시
- 장소 : Fairfax Memorial Park
-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 미사 지향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3 골든벨을 울려라 ~ 교리경시대회**

- 본당 승격 25주년과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천주교교리문답과 7성사를 중심으로 교리경시대회를 합니다.
- 일정 : 11월 7일(일), 구역 대항과 개인전
  - 시상 : 구역별, 1, 2, 3등에 상금
  - 개인전 : 골든벨을 울리는 분께는 인천 왕복 항공권 / 골든벨을 울리지 못하면 LA 왕복항공권 수여.
  -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4 성당 입구 25마일 서행 운전**

- 성당앞 Rippling Pond 도로에서 25마일로 서행해 주세요. 특히 새벽미사에 오실 때 조심해 주시고,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에 오면서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장터 한마당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3:4 법칙**

세상에는 3:3:4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인 30%와 무조건 부정하는 30%와 무관심한 40%가 공존한다고 합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함께 하는 30%인가? 반대하는 30%인가? 무관심한 40%인가? 본당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에 함께하는 우리이기를 기도합니다.

**본당 승격 25주년 기념 행사 안내**

- \* 10월 23일(토) : 5K Run & Walk(Burke Lake)
- \* 10월 31일(일) : 야외미사, Bull Run Park
- \* 11월 7일(일) : 교리경시대회(천주교 교리문답 중심)
- \* 12월 : 본당 대림 특강(12월 5일, 12일)

**교황님의 10월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선교 제자들**

세례받은 모든 이가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삶의 증거를 통하여 선교에 나서고 복음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10월 10일(연중 제28주일)

주일헌금	\$ 7,170.00
교무금	\$ 11,410.00
교무금(신용카드)	\$ 2,420.00
감사헌금 & 성소후원회	\$ 1,490.00
온라인 봉헌	\$ 4,600.00
<b>합계</b>	<b>\$ 27,090.00</b>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매일 **오전 8시, 오후 12시, 6시 뉴스 시작 1분 전**에 **김태진 신부님의 1분 묵상**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10월 20일(수) 오전 6:15-6:45**  
**10월 23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주임 신부님의 본당 미사 강론
- 본당 공지사항
- CBCK 미디어 교리 - 묵주기도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10월 21일(목) 오후 5:00-6:00**  
**10월 22일(금) 저녁 8:00-9:00**  
**10월 24일(일) 오전 6:00-7:00**

1. 신부님 주일미사 강론
2. 특강 : 김대우 모세 신부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8) - 너에게 하고 싶은 말

**본당 정상화에 따른 행정 지침**

1. 미사 참석자는 꼭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2. 성당에 들어갈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야 합니다.
3. 미사 때 응답과 성가는 작은 소리로 할 수 있습니다.
4. 평일미사 때는 거리두기를 유지합니다.
5. 회합을 할 때에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6. 회합 장소는 사전에 사무실과 협의합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00 AM</li> <li>• 10:00 AM(교중미사)</li> <li>• 2:00 PM(학생미사)</li> <li>• 5:00 PM(청년미사)</li> </ul>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